

2월 (주관 : 서정용 장로)

구분	안 내	봉 헌
1부	김선녀 남시영	정재섭
2부	정순자 배종희 김미수 김영숙	신승훈 박윤원 남시권 조승호
차량안내	권중규 박요환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마애수양관 사타자교회 동가톤교회 동소하교회 하얼빈교회
삼차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돈화교회 YMCA YWCA C.C.C
중국-장경식, 김기웅 태국-신동은 일본-조원철
필리핀-이교성 미얀마-홍길주 마다가스카르-박재일
경안여고 경안성로원 경안신육원 안동교도소 안동경찰서
범양선교회 남중국선교위원회 러시아카프카스신학교 CTS
국제기아대책기구 경북새터민선교회 원동교회 서미교회
유동교회

예배모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오전	9:30	벤	엘
	2부	주일오전	11:30		
찬양예배		주일오후	3:00	벤	엘
수요기도회	11-2월	수요오후	7:00	벤	엘
	3-10월	수요오후	7:30		
새벽기도회	11-2월	월-토오전	5:30	엘	림
	3-10월	월-토오전	5:00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엘	림
유치부		주일오전	11:30	베들레헴	
유년부		주일오전	9:30	베들레헴	
소년부		주일오전	9:30	사무엘	
중등부		주일오전	10:30	다윗	
고등부		주일오전	10:30	요셉	
청년부		주일오후	1:30	엘림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 (옥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박종석	담임목사	박장덕
부목사	이종백 배장열 홍순진	교육전도사	권엘림
교육목사	김영숙	원로장로	권영만 박종만 박상수 반두용 권인철 신노균 김덕영 김경한 강세일 안연호 정복수 이교섭 김윤환 김기일 조창래
은퇴장로	김봉학 박용래 강신원 장부익 김성대 오태희 안상홍 문상호 정유진 정호경 최태규 황천석 정재홍(전임)	시무장로	박무주 정동수 손강덕 권영준 김성수 설동한 서정용 정성진 이규훈 이종기 전석우 김경일 박영복 신상훈 임규선 김희동
지휘	박수경	피아노	장은혜 이지혜
오르간	신강희 강근숙 임혜광	신디	남시영 강계연 배의진

- 환영**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예배** * 오후 찬양예배 : 한국국제기독교연합회 안동캠프 순방예배로 드립니다(봉헌시간 있습니다). * 사순절(2.22. 수~4.8. 토) : 온 교우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목요 경배와 찬양(이번 주 주제: 기쁨) :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엘림실 *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시, 1층 엘림실
- 모임** * 월례회 : 2부 예배 후- 4부남 : 새가족부실 / 7부남 : 만나6 / 원로회 : 만나5 / 4여전 : 주방 5여전 : 사무엘실 / 6여전 : 모자실/7여전 : 만나1 / 8여전 : 만나2 / 9여전 : 만나3 * 순장 모임: 수요기도회 후, 본당
- 알림** * 청년부 동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천원선교주일: 다음 주일은 천원선교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교·세례식: 4.2(주일) II부 예배 시, 신장-사무실/세례교육: 매주일(3/12, 19, 26) II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 * 예배 시간 변경: 3월부터 새벽기도회-새벽 5시, 수요기도회-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 마애교회 분립을 위한 교인 서명: 본당 뒤 안내소에 있는 양식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원어린이집 졸업식: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베들레헴실 * 교회 청소: 오늘은 9팀이 담당합니다(본당, 계단, 화장실, 카페 등). * 경안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제92회기 1차 순회찬양예배 및 1차 실행위원회: 오늘 오후 3시, 청송 현동교회 * 제9회 경안장로대회: 25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도원교회, 참석대상-원로, 은퇴, 시무, 협동, 전임장로, 강사-장주희 아나운서, 홍수환 장로 * 경안노회목사회 목회세미나: 20일(월) 오전 10시 30분, 안동서부교회, 강사-림형석 목사 * 성경통독(2): 박유분(1)

교인동정

번호	이름	주소	샘	기관	인도자
5	임도경	노하길 코아루미소지움	13	4여전	박지우
6	이승열	복주6길	7	3부남	김순어
7	천경아			4여전	

■ 건축현금 계좌: 농협 707059-51-022680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수입조, 감사현금 계좌: 농협 707015-51-044866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지난주 봉헌

실 일 조: 강근숙 강세일 강수일 고은송 권남수 권태환 김경일 김기일 김남진 김보람 강영수 김정은 김지혜 김현옥 김환영 박순옥 박종석 배종희 반용섭 서정용 손미애 손원배 안은숙 이상선 이승선 이진려 이화자 장은석 전석우 전영숙 권혜진 정은송 조경화 현경화 무명명

감 사: 강근숙 강도순 강순교 강상수 고은송 권근옥 권기환 권영덕 권혜수 김소영 김광원 김현희 김영희 김민수 김주영 김진영 김진호 김진희 김현진 김희영 남위순 만기식 민요한 민창재 박신의 박유분 반용섭 서수경 석화란 손미애 손원배 선윤수 양승기 우경순 이상선 임수현 임장무 임희정 전은희 정동수 정석진 정순남 최경란 무명명 어윤림손혜사령

생일감사: 박봉교 주정봉헌: 24명

건축: 강근숙 강도순 고은송 강정희 김중성 김진영 김현철 나상의 류명태 류명희 배윤진 서정용 우영숙 이정 이상선 이은정 이정민 이창원 전영숙 정재섭 조승호



2023 표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FAX. 054) 852-1307
 www.dowonch.com





주일낮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09:30
2부 11:30

인도 : 1부 이종백 목사
2부 배장열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145:18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1장 | 다함께
- * 성서교육 | 136(성령강림 2)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192장 | 다함께
- 중보기도 | 1부 : 권기한 집사
2부 : 정석진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열왕기하 25:18~21 (구약p. 607) | 인도자
- 찬양 | 1부 :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 청년부
2부 : 주님이 일하십니다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마지막 날에...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197장
- 찬송 | 성령 받으라 | 다함께
마지막 날에
-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부르신 곳에서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다음주 기도 : I 부 : 박경구 집사 II 부 : 이종기 장로



찬양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6)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안동캠프 순방예배)

15:00

인도 : 정복수 장로

-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우재경 장로(성결교회)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사도행전 17:11~12 | 인도자
- 설교 | 내 마음에 성경 | 홍순진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메세지 | 이규근 장로(남문교회)
- 특송 | 기드온 회원
- 봉헌 | 봉헌기도 : 박태현 장로(광성교회)
- 찬양 | 다함께
- 축복기도 | 홍순진 목사

© 다음주 : 제1부 남선교회 헌신 예배

수요기도회

19:00

인도 : 박장덕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김보람 집사
- 찬양 | 2샘(찬들샘)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마가복음 11:1~10 | 인도자
- 설교 | 주가 쓰시겠다! | 박장덕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 전영숙 집사 찬양 : 4샘(새늘샘)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522장	220장	217장	340장	501장	94장
말씀	마12:31-37	마12:38-50	마13:1-17	마13:18-30	마13:31-43	마13:44-58



지난 주일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본문 : 열왕기하 25:1~7

제목 :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시드기아 왕 9년째 되는 해 시드기아 왕이 갑자기 바벨론 왕을 반역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봉쇄해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려 열아홉 달 동안 봉쇄했습니다. 설상가상, 예루살렘 성안은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 빈틈이 보였어요. 시드기아 왕과 신하들이 바벨론 군사들 몰래 도망을 쳤어요. 이라바 골짜기를 지나 요단강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벨론 군사들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하자, 도망치던 신하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시드기아 왕을 체포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재판이 열리고 먼저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처형합니다. 시드기아 눈앞에서 처형합니다. 이어서 시드기아의 눈알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아 왕이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아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본인 두 눈이 뽑힙니다. 이어서 시드기아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 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마지막까지 남죠. 아들이 처형당하는 모습만 머리에 남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떤 눈이냐. 지금 눈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 먼저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물을 바로 주실 수가 있죠. 땅에서 양식이 나오도록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고, 왜 매일 매일 먹을 양식, 하루만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가?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 광야 생활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바리아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먼저 10명이 보고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잘 보았다.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라, 얼마나 크고 실한가? 그리고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품은 건고하고, 심히 큰 것을 보았다. 야자 지손을 보았다. 그 땅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매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매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이 정탐꾼들은 계속 보았어요. 현상만 보았어요, 문제만 보았어요, 현실만 보았어요, 땅의 것만 보았어요,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그러나 비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몰살당한다. 이길 수 없다, 몰살당한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현상, 현실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의 눈은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인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주인의 손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주인의 손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주인의 손,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예 주께서 들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별들을 지으셨는데, 어찌 우리를 이롭게 짓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손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병자의 눈, 병자의 입, 병자의 손을 고친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만지시어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여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낫게 되었어요. 주님의 손은 어린아이들을 만지시며 축복하신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 신앙과 삶을 건강하고, 이롭게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장덕 목사(2023. 2. 12. 주일 낮 예배 말씀)